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는 수행자 향한 경책

동국대 종합학·성철선사사상학 학술대회서 불교사 흐름따라 조명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으로부터 촉발했던 돈점 논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소장 인환)와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선사상연구소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돈점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5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초기 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과 점', 종호 스님(동국대)이 '중국선사들의 돈점론과 그 이해', 정영식 동국대 HK연구초빙교수가 '돈오돈수와 조사선',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돈점논쟁 새로 읽기'를 발표했다.

임승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으로 '돈이나' 혹은 '점이나'를 놓고 따지는 것은 초기불교 가르침에도 위배되며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돈점논쟁을 간화선이 만연한 풍토에서만 가능한 잣대 속의 태풍이라고 봤다. 절대적 가치와 신념만을 강조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소통 메시지가 한국불교의 돈점논쟁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호 스님은 "돈점론은 중국선에서 수행 과정 및 증오(證悟)에 대한 자기확신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돈점론이 수행하는 도중이라면 장애이고, 가져서는 안 될 망녕거리지만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법을 이해·확신하고 수행의 방향을 잡고 수행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크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육조혜능 등 중국 선사들의 돈점론을 설명했다.

스님은 "혜능은 언하즉오(言下即悟)의 돈오돈수론만이 아니라 선수후오적 돈오

돈수론도 보이고 있다"며 "선회는 돈오점수론의 최초 주장자로 알려졌지만 돈오돈수사상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마조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적 내용을 같이 보였고, 황벽은 돈오돈수와 점수돈오를 보였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위산은 돈오점수를, 위산의 제자 향엄은 돈오돈수를, 향엄의 사형인 양산은 돈오점수를 보였다고 해 한 법맥에서도 근기에 따라 돈점이 존재했음을 보였다.

깨달음에는 돈·점 구분 없어
중국선사는 근기따라 돈점 혼용
믿음·정견·대발심이 중요

종호 스님은 "중국선의 중점은 돈오설이다. 수행과 관련해서는 선오후수적 수증론인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론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증론은 선사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상근기와 상근기에 배대해 설명된다"고 말했다. 돈오는 상근기 이상이며, 돈오돈수는 상상근기의 최상근기자, 돈오점수는 상근기자라는 설명이다.

종호 스님은 "상근기나 상상근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선사들은 현실에서 근기를 끌어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돈법에 대한 믿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의 믿음 등 '믿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사들은 중도실상에 대한 정견을 일으키는 것, 보리심을 발하는 대발심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믿음, 정견, 대발심이 중하근기자가 상근 혹은 최상근기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종호 스님은 "선사들은 선이 최고 근기



동국대 종합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중국 선사들은 수행자의 근기를 살펴 돈오점수를 더 많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자들에게 해당되는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하근기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최상근기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에 의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선은 상근기 이상의 소수자만을 위해 선택된 수행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과 정견, 발보리심을 통해 최상근기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수행법이라는 설명이다.

스님은 "어록에는 사비돈제(事非頓除)나 보된(保任) 등 점수 관련 구절이 돈수 관련 구절보다 많이 언급돼 있다"며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가운데 중국 선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돈오점수론"이라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간화선 주장자 대혜와 그의 스승 원오도 돈오점수의 내용을 보였다. 이는 최상근기자보다 돈오점수가 대다수라는 수행자의 근기 성찰에 따른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선은 돈오점수론이지만 그 형태가 어찌됐든 중국 선사들은 수행자들

의 근기를 살펴 보다 효과적으로 후학들을 이끌어 줄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중국선의 돈점론에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돈오돈수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선의 특징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교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돈오 이후에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즉 돈오점수나 돈오돈수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불교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 돈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설명이다.

정영식 연구교수는 "한국선에 있어서 돈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돈오돈수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성철 스님이었다"며 "스님이 제기한 돈오돈수는 수행을 게을리하는 오늘날의 풍토에 대한 경책이며, 조사선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법화사상으로 석굴 조성

문무왕 연구교수, 금강대 HK학술대회서 발표

금강대 HK연구센터는 3월 24일 금강대에서 '법화사상의 원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5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주제발표 '중국 초기석굴에 나타난 법화사상적 요소'를 통해 법화사상과 불상 조상의 관계를 조명했다.

문 연구교수는 운강·용문석굴에서 미륵보살의 구현은 전육불(前六佛)-석가불(釋迦佛)-미륵불(彌勒佛)로 과거-현재-미래의 법화적 도상학 특징이 구현된 점을 강조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이를 (미륵경) 계열의 신앙적 특징보다는 (법화경) 계열의 신앙의 특징에서 찾았다고 했다.

문 연구교수는 "운강석굴 제2기 석굴에서 상단 미륵보살과 중단 석가다보이불법좌상이 구현되는 점이나 용문석굴 고태동의 좌우불감에 있어서 상단은 석가불이 중단은 미륵보살상이 위치하는 점도 이러한 미륵이 석가의 계승자라는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운강석굴은 담요의 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법장인연전(附法藏因緣傳))을 중심으로 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 사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화경)적인 미륵신앙을 통해 새로운 열망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연구교수는 "이러한 미륵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사후에 도솔왕생의 열망이 아닌 미륵신앙을 통해 현세에서 미륵불의 현신을 바라는 강한 의지도 함께 투영됐다"고 말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운강석굴의 전통과 새로운 용문양식의 출현은 복위의 변천과 연관이 있다"며 "운강석굴은 국가적 후원에 의한 조상활동이 석굴을 조성하는 기본적 동인이 된 반면에, 용문석굴은 국

중국 복위 운강·용문 석굴은
전육불·석가불·미륵불의
과거·현재·미래 법화도상 구현

가적 동인과 함께 복위사회의 불교적 성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치즈키 마스미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본에서의 법화신앙 수용과 전개-일연종을 중심으로' >차차치 교수(동남대학원대)가 '관음신앙의 변용과 그 특징' >후쿠시 지닌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연종의 신라·고려불교 인식에 대해서' >한지연 교수(금강대)가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천산남로와 양주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중국 운강석굴. 문무왕 연구교수는 법화사상이 이들 석굴조성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발표했다.

스님들이 시체를 묻어야 했던 이유?

김성순 HK연구교수, 불교학연구회서 밝혀

일본불교는 스님들이 장례를 집전하고, 사찰에 납골하는 것이 대중화돼 장의불교로 불린다. 한국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시체를 거두고 화장 혹은 매장했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순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3월 2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불교학연구회에서 '시체를 매장했던 승려들: 매골승과 삼매히지리'를 주제발표했다.

매골승은 뼈를 묻는 승려라는 의미로, 고려시대 사원에서 승려나 단원들의 화장을 할 때 다비·습골·매장 등 장례 과정을 맡아 처리하던 승려를 말한다. 삼매히지리는 일본에서 장송을 담당했던 하급 승려이다.

김 연구교수는 "한국의 매골승은 (장례 과정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본의 히지리는 '자임(自任)'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고려시대에 권력층의 임종과 장례식이 사원에서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매골승이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불교적 자비의 교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설립한 대비원에서 극빈층이나 재난으로 인한 무연고 시신들의 장의를 처리해 줄 능자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승려들이 이 일을 하게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정토신앙이 확산되고, 겐신의 (왕생요집)이 보급되면서 서서히 사원 안으로 장례식 등 임종

의식이 들어왔다. 이어 가마쿠라 신불교 시대에는 기존의 제도불교인 관승집단에서 벗어난 히지리들이 민간을 떠돌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

김성순 연구교수는 "일본의 히지리는 민간포교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장의를 실천하며 장례불교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국가정책에 의해 제도사원에 강제환원당했다"며 "한국의 매골승은 불교사원 자체의 요구와 국가적 정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장의에 참여했다가 그나마 축소된 임무를 후일 민간결사조직인 향도회에 넘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전자불전' 제13집 발간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최근 <전자불전> 제1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개발'을 주제로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법상 스님) >한국 정토신앙 관련 문화재 현황(정우택 교수) >한국정토신

양관련 사찰의 분류 조사(이흥구) >한국정토신앙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언(이재수 연구원) 논문이 실려 있다.

기초논문으로 >한글대장경 웹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곽문상 정원석 채희원 이재수 이용규 이금석 홍영식 보광 스님)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